

## \*질문

### [스] 카카오톡 'My비밀번호' 설정 창이 뜰 때 대처법

9:06 ▲ 📶 📶

📶 📶 76%

×

보안이 강화된 팀채팅 이용을 위해  
My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

My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 
팀채팅 이용은 가능합니다.



My 비밀번호 입력

||| ○ <

카카오톡을 쓰다 보면 갑자기 "My 비밀번호를 등록해 보세요"라는 창이 떴서 당황하실 때가 많습니다. "내 비밀번호가 노출됐나?" 혹은 "꼭 만들어야 하나?"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.

#### 1. 이 메시지는 왜 갑자기 뜨는 건가요?

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, 보안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"더 안전한 기능을 써보시겠어요?"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. 특히 최근에는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

'팀채팅'이나 사진·대화를 따로 저장해두는 기능을 사용할 때 이 창이 자주 나타납니다.

## 2. My 비밀번호는 무슨 일을 하나요?

쉽게 비유하자면, 카카오톡이라는 큰 대문에 걸린 자물쇠 말고, 내 중요한 서류를 넣어둔 '개인 금고'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.

- 나중에 휴대폰을 새로 바꿨을 때,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나 사진들을 이 금고 비밀번호(My 비밀번호)만 알면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

## 3. 왜 안 만들고 그냥 창을 닫아도 되나요?

- 필수가 아닙니다: 이 기능은 "원하시는 분들만 쓰세요"라는 선택 사항입니다.
-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: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카톡이 안 되거나, 대화가 삭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. 지금처럼 가족, 지인들과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창을 닫으셔도 됩니다.
- 관리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: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만들면 나중에 잊어버려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.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.

## 4. 왜 자꾸 반복해서 뜨나요?

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 "아직 금고 비밀번호를 안 만드셨는데, 정말 안 만드실 건가요?"라고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.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뜨는 광고창처럼 생각하시고, 그때마다 가볍게 닫아주시면 됩니다.

---

### [한 줄 요약]

"이 창은 카톡에서 더 복잡한 보안 기능을 쓰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. 복잡한 게 싫고 지금처럼만 카톡을 쓰고 싶다면, 그냥 '나중에 하기'나 'X' 표시를 눌러 창을 닫으세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!"

---